

**왕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을 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그분에 대한 은밀한 누림을 가짐**

**3/16 월**

**마 6:5-6**

5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시다.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눅 14:13-14**

13 그대가 잔치를 베풀거든,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팔다리 못 쓰는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14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대가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대가 그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9:10-11**

10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넘치게 공급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씨를 공급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의의 열매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11 여러분이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온갖 구제를 하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 14:14-24 (22, 23)**

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곳은 외딴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16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시자,

17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하였다.

18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하시고,

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20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고,

21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가량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24 한편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어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3/17 화**

**마 6:1, 6**

1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사 45:15**

15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어,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 6:17-18**

17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18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골 3:3-4**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요일 3:2**

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18 수**

**마 14:23**

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눅 6:12**

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막 1:35**

35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눅 5:16**

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마 14:19, 22-23**

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22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3/19 목**

**시 42:7**

7 주님의 바다 회오리 소리에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거센 물결이 제 위로 지나갑니다.

**사 37:31**

31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마 13:23**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행 19:20**

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자라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시 92:13-15**

13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져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가득하며 항상 푸르니  
15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올곧으신 분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다네.”

**3/20 금**

**고후 12:1, 5**

1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막 5:19**

19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사 39:2, 6**

2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서, 자신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귀한 기름, 무기고 전체와 보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두 보여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6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이날까지 너의 조상들이 쌓아 둔 모든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골 3:23**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엡 2:8-9**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21 토****시 91:1-6, 14-16**

- 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2 나는 여호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3 그분은 그대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 내시리라.  
 4 그분께서 그대를 깃으로 덮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리니 그분의 진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5 그대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밤의 공포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든  
 6 어둠 가운데 도는 전염병이든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이든.  
 14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 그를 구출하며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15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져 내어 존귀하게 하리라.  
 16 그의 날을 연장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3/22 주일****시 42**

- 1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혈떡이듯이 오, 하나님! 제 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2 제 혼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하는데 저는 언제나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3 사람들이 온종일 제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제 눈물이 밤낮 제 음식이 되었습니다.  
 4 전에는 환호와 찬양의 소리 드높여 무리와

두루 다니며 축제의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었으나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며 제 속에서 혼을 쏟아 냅니다.

- 5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그분의 얼굴로 구원하시는 분을.  
 6 오, 저의 하나님! 제 혼이 속에서 낙심되기에 저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7 주님의 바다 회오리 소리에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거센 물결이 제 위로 지나갑니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자애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 노래가 제게 있으니 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 저는 제 반석이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에게 짓눌려 슬퍼하며 다녀야 합니까?  
 10 제 뼈를 부수듯 저의 대적들은 저를 비방하며 온종일 제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11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이신 분을.

Hymn: 1132

Further Reading: *Life-study of Matthew*, msg. 21